환경 설정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썼다. 7 장까지는 cpu 만 있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다. 프로그램 8-7 을 수행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. Epoch 1 에서만 무한 로딩되는 느낌이었다. CPU 와 메모리 활용률은 거의 100%였고,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린 노트북에서도 GPU 활용률이 10% 아래였다. 그래서 외장 GPU 가 달린 노트북에서 gpu 를 활성화시키려 했다. 하지만, 이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. 버전 호환성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았지만, 프로그램(anaconda, cuda, cudnn)을 몇 번을 재설치하고 tensorflow-gpu 에 대해서 찾아보고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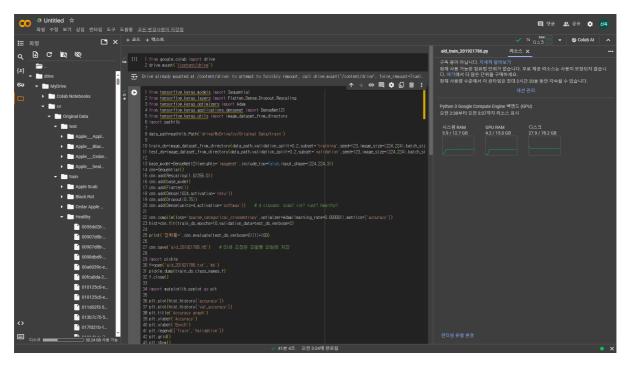
Colab 을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해서 결국 colab 을 썼다. 프로그램 8-7을 돌려보고 싶었지만, dataset 을 구글 드라이브에 동기화하는 게 오래 걸려서 그냥 바로 과제를 수행했다. colab 에서 새 노트를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했다. 코드는 8-7과 다른 부분은 별로 없다. 데이터 경로 부분, CNN의 마지막 layer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4 개(Apple leaf 상태가 총 4 개 부류(apple scab, black rot, cedar apple rust, healty) 로 분류되기 때문이다) 노드로 출력되게 하는 부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할 때 epoch을 200 이 아닌 10 개만 반복하는 부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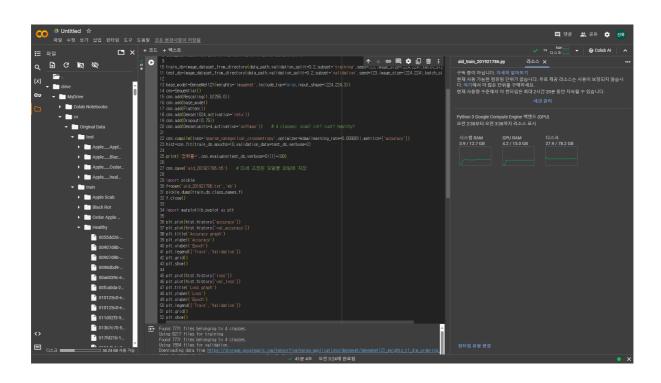
프로그램 8-7 설명과 다르게 epoch #1 에서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epoch #2 부터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. 백본모델을 DenseNet121이 아닌 다른 걸(ex. VGG16) 쓰거나 CNN layer의 구조를 바꾸는 게 맞는 건지, 이렇게 첫 epoch에서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은지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. 정상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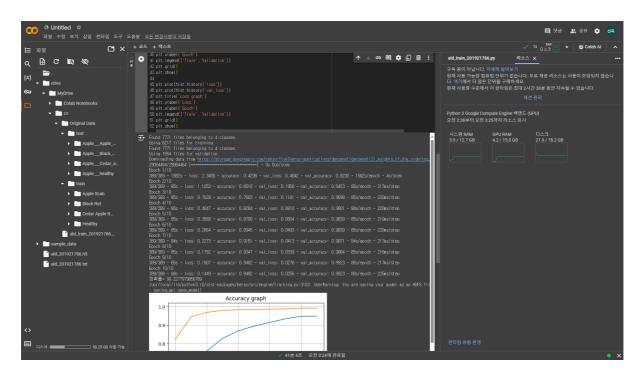
비전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실패했다. 모델 학습도 잘 했고, 모델 저장도 잘 한 것 같은데,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. 위 내용처럼 백본모델이나 신경망의 층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문제인지 감이 잘 안 잡혔다. 오류 초반부에 "conv1d/conv"가 적힌 걸 보면 conv2d 여야 하는데 conv1 라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기도 했다. 오류가 하나가 아니어서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봐야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. 따라서 GUI는 이름만 조금 수정했을 뿐 개선사항은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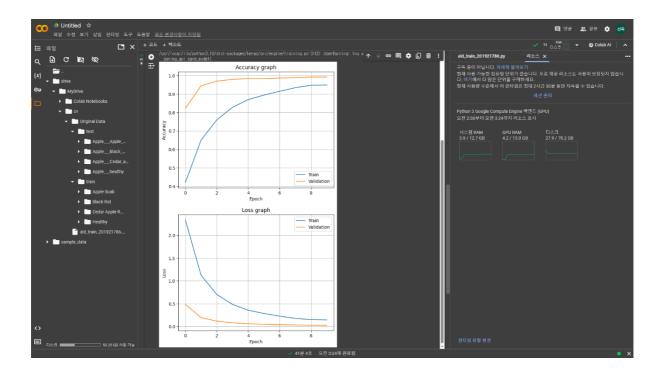
마지막으로 외장 GPU 가 달린 노트북에서 gpu 를 활성화시키는 게 편할 것 같다. Colab 은 세션 만료 때문에 불편했고,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구글 계정을 3 개를 돌려썼다.

아래는 colab 에서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.









데이터셋 사이트에 VGG16을 이용한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가 있는 걸 발견하고 epoch을 10 번만 돌리도록 시도해봤다. 하지만, 모델과 텍스트 파일은 만들어졌지만, 비전 에이전트는 오류가 발생했다. 오류가 조금 더고치기 쉬워 보이긴 했다. 아래는 colab 실행결과와 비전 에이전트 실행 결과이다.

